

국민보도연맹시기 정지용의 시 연구

이 순 욱*

차 례

I. 들머리

II. 국민보도연맹과 정지용

III. 국민보도연맹시기 정지용의 발굴시 세 편

IV. 마무리

I. 들머리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정지용은 이름 자체로 정전이자 신화이다. 2003년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이러한 문학적 명성을 재확인하는 일이 잇따라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지용의 문학적 생애에서 광복기는 이러한 명성과 신화가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정신적 파탄을 경험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의 재편으로 국가감시기구가 작동하면서 일련의 의미심장한 ‘선택’이 강요되었던 까닭에 명망가 시인 정지용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굴종과 모욕, 정신적 공황을 경험하였던 시기이기도 한다. 1949년 6월 국민보도연맹의 결성으로 전향의 계절을 맞아 자연인 정지용의 삶뿐만 아니라 명망가 시인으로서의 삶 자체가 위협받았다. 나라잃은시대 말기에 견주어도 결코 가볍지 않은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 직면한 셈이다.

* 한국해양대학교 강사

이처럼 시인의 급격한 삶의 변화 때문인지 광복기의 정지용 문학 연구는 문학적 생애 가운데서 의외로 이해가 얇은 편이다. 정지용 문학 연구에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던 논의¹⁾조차도 광복기 정지용 문학이 도달한 지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못했다. 물론 문학 활동과 사회 활동의 변화가 잦았던 시인의 삶 못지않게 이 시기의 작품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²⁾ 그런 까닭에 후기 문학 가운데서도 삶의 파고가 드높았던 국민보도연맹시기에 대한 이해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정지용이 국민보도연맹시기에 쓴 작품은 여럿³⁾ 있으나, 이 글에서는 새로 발굴한 「妻」, 「女弟子」, 「倬磻里」 세 편을 대상으로 이 시기의 문학적 특질과 시인의 정신 풍경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광복기 정지용 문학의 한 시기로 국민보도연맹시기를 설정하는 까닭은 우선,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면서 문학인들이 국가기구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관리되었던 까닭에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시부문 위원이자 아동문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정지용으로서는 좌파 전력이 크게 문제되던 시기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형식(방법)과 내용(사상)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던 이전⁴⁾과는 달리 상상력의 파탄 징후를 드러냄으로써 형식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시편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배적인 현상은 언어를 아끼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함으로써 형식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복기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혼란을 거듭했던 정지용의 처지를 생각할 때, ऐसा롭지 않은 변화라 볼 수 있다.

1) 김학동, 『정지용 연구』(민음사, 1997); 장도준, 『정지용 시 연구』(태학사, 1994); 이승원, 『정지용 시의 심층적 연구』(태학사, 1999); 김명인, 「곡예의 시대와 시-정지용의 「곡마단」 고」, 『시어의 풍경: 한국현대시사론』(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등이 대표적이다.

2) 이런 가운데 최근 박태일이 수필 2편, 심사평, 5편, 좌담 1편, 시 1편, 육필로 된 시집 발문 원고 1편을 발굴하여 학계에 보고함으로써 광복기 정지용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였다. 박태일, 「새 발굴 자료로 본 정지용의 광복기 문학」, 『한국 근대문학의 실증과 방법』(소명출판, 2004), 83~145쪽.

3)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기의 작품은 총 7편이다. 「曲馬團」(『文藝』 제2권 제2호, 1950.2), 「늙은 범」, 「네 몸매」, 「꽃분」, 「山 달」, 「나비」(『文藝』 제2권 제6호, 1950.6), 「椅子」(『해성』 창간호, 1950.2.).

4) 가령 『白鹿潭』(1941)이나 광복기의 산문시들은 지식인의 갈등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었다.

이 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정지용의 광복기 문학 가운데서 국민보도연맹 시기를 따로 설정하여 정지용의 사상 전향 과정과 국민보도연맹 문화실에서의 문학 활동을 밝히고, 나아가 이 시기 새롭게 발굴한 시 세 편을 학계에 처음으로 공개함으로써 광복기 정지용 문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지용의 후기 문학에 대한 이해를 한결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II. 국민보도연맹과 정지용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정착되던 시기였다. 이를 위해 이승만 정권은 군경이나 미군사고문단, 대한청년단, 국가보안법과 같은 각종 법적·물리적 통제 기구를 작동시켰는데,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국민보도연맹이다.⁵⁾ 국민보도연맹(The Federation Protecting and Guiding the Public)은 이승만 정권이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사상 전향 단체이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상범의 수가 급증하여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했던 현실적 상황에서 전향 가능성이 다분한 좌익사범들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루 알다시피 1949년 6월은 이승만 정권이 국회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 사건에 연루된 진보 세력들을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시기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과 국민보도연맹은 이러한 탄압을 뒷받침해 주던 정당한 법적 장치였던 셈이다. 이처럼 국민보도연맹의 결성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착시켜 나가던 과정의 산물로, 국가감시체계를 발동시켜 남한 전역에 걸쳐 반공전선을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목적은 사상전향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상범들을 보호·지도하여 반공국민으로 육성⁶⁾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선무공작을 담

5)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공포되었으며,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6월 5일 결성되었다.

6) 국민보도연맹 결성에 앞서 4월 21일 시경찰국 회의실에서 준비회를 개최하고, 취의서를 마련하였다.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정부수립과 남로당의 멸족정책으로 탈당전향자가 속출하나 此等 전향자·탈당자를 국민 계몽·지

당하였던 부서가 바로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 문화실이다. 문화실은 7개 전문 부서-문학부, 음악부, 미술부, 영화부, 연극부, 무용부, 이론연구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초대실장은 양주동이 맡았다.⁷⁾ 이 부서에서는 전향자뿐만 아니라 좌익인사, 나아가 일반국민들을 사상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반공필기대회, 국민사상선양대회, 강연회, 영화상영 등의 각종 문화사업을 잇따라 개최하였다. 물론 국민보도연맹 문화실과는 별도로 당시 정부 공부처에서도 문인계몽대를 조직하여 지방에 파견하여 선무공작에 힘을 쏟고 있었다.⁸⁾ 이처럼 문화실은 문화인들을 사상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반공이데올로기를 사회 전반에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당시 문화계의 거물급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정지용의 자전 가맹과 활동은 엄청난 과공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문화실은 기관지를 발행하는 일 이외에도 대한교향악단, 신향극단 등을 조직하여 명동시공관에서 음연주회와 공연을 가졌는가 하면, 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⁹⁾ 특히 문화실 이론연구부에서 주도한 기관지의 발행은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사상을 교화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반공이데올로기를 선전·선무하는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여겨진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愛國者』 제2호를 통해서나마 이 매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¹⁰⁾

도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으로서 滅私奉公의 길을 열어 줄 포섭기관이 절대로 요청되는 바 여사한 기관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 나머지 吾人은 淺學微力을 무릅쓰고 決死報國의 지성 일념에서 감히 전향자 국민보도연맹을 期成하고자 하는 바이다.” 『思想 轉向에 拍車 國民保導聯盟을 結成』, 『동아일보』 1949.4.23, 2면.

7) 선우중원, 「전향자의 계몽 선도단체 <국민보도연맹>」, 『思想檢事』(계명사, 1992), 167~176쪽. 모든 문화활동은 문화실 책임자의 지위에 따라 전개되었으며, 오제도 검사가 초대 지도위원을 맡았다고 한다.

8) 공보처선전대책중앙협의회에서는 10월 23일부터 11월 3일에 걸쳐 남한 각 지방에 지방계몽을 위한 영화, 연극반을 특파하였다. 문학계에서는 박종화, 이현구, 김영량, 오종식, 유치진, 조연현 등이 강사로 참가하였다고 한다. 『文壇動靜』, 『문예』 제2권 제3호(1950.3), 199쪽.

9) 선우중원, 앞의 책, 173쪽.

10) 주간지 『愛國者』와 월간지 『創造』를 발행했다고 하나, 현재 글쓴이가 확인한 매체는 『愛國者』 2호뿐이다.

저 자	제 목	수록 면	비 고
	一死殉國하라	1	
朴友千	南北勞動黨의 亡靈政策(上)	2	『愛國者』 편집 겸 발행인
金鎭求	【赤色魔窟을 박차고 나와서】 神의 이름으로	3	전 교육자협회 가입
金炳弼	【赤色魔窟을 박차고 나와서】 民族道義心에서	3	전 전평출판노조원 현 국보련 공인사(公印社) 세포원
安鍾秀	【赤色魔窟을 박차고 나와서】 깃발했던 나의童心	3	전 전평노동조합원 현 국보련 동대구 세포원
李鳳燮	【赤色魔窟을 박차고 나와서】 大韓民國에 對한 忠誠	3	문리대
辛相烈	赤鬼의 손은 監獄내에도 빠져있다! 그 속에 流布되는 謀略宣傳 몇 가지	4	국보련 연맹원(9월 26일 서울형무소에서 석방)
金海洙	訓練을 통한 組織生活의 必要- 幹部訓練生을 보내며	4	
池昌錄	民族은 同族間의 共同性體-修業 試驗答案	4	제2기훈련생(동국대학생), 마포구○ ○세포
白如石	붉은 怪物이야기(제2회)	5	
	南勞黨 서울市黨部幹部들에게 -黨內秘密과 轉向心境을 듣는 座談會	6	남노당 탈당인사-홍민표(남노당서울시당 부 부위원장), 조병수, 이승윤, 홍태식, 이 은식 김준연(국회의원) 양우정(언론인, 연합신문사 사장) 박순천(대한부인협회 회장, 부인신문사 사 장)
	世界防共戰線-獨・伊篇	9	
懷 月	(隨筆) 靑盜餘話	10	
金龍濟	(諷刺詩) 물 없는 風景	10	
吳仁晚	文壇의 整理와 補强	11	
	噓諷煽-어린 원님, 똥문은 돼지	11	
方仁根	(小說) 丈夫一言이 重千金(上)	12	

『愛國者』는 국민보도연맹의 기관지로 주간신문이다. 편집 겸 발행인은 국민보도연맹 간사장인 박우천이며, 편집국장은 장기환, 인쇄는 현수엽이 맡았다. 창간호는 1949년 9월 25일에 발행되었다.¹¹⁾ 주간지를 지향했지만 부정기적으로

11) 『國民保導聯盟 機關紙 週刊愛國者發行』, 『한성일보』 1949.9.13, 2면. 2호는 10월

발행되었으며, 최소한 7호까지 발행¹²⁾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관지의 발행은 “사상은 사상으로 투쟁하여 상대방을 극복시켜야” 하는 까닭에 언론과 더불어 전향 탈당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一大 국민운동”¹³⁾의 차원으로 인식되었다.

『愛國者』 제2호의 목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로 좌익단체에 몸담았던 전향자의 참회록이나 경험담을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글들을 대폭 수록한 까닭은 지하로 잠입한 잔존 좌익세력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이들로부터 노동자·농민을 포함한 민중들을 분리하려는 데 있었다. 특히 월북하지 않고 남아 있다 체포된 남로당 간부들의 자기 고백적인 글은 아직까지 전향하지 않은 남로당원에 대한 유화적인 전향공작이자 포섭의 방편으로서 상당한 파급력을 지녔을 것이다. 남로당 자수기간¹⁴⁾을 앞둔 시점에서 발행된 이 매체를 통해 남로당과 민전 산하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자진 가뭇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보도연맹 이야말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변보호처라는 점을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강한 법적 대응력보다는 전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문학적인 글들은 사상 선도를 위한 문학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시와 소설, 수필, 비평, 이야기물 등의 다양한 갈래에 걸쳐 내용을 채우고 있지만, 거물급 좌파 문학인들이 대부분 월북한 까닭에 이 필진들이 상당한 선전 효과를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 생애에 걸쳐 급격한 자기 변모를 거듭했던 김용제의 『물 없는 風景』만 보더라도 “여름밤의 꿈”의 형식을 빌어 물이 고갈된 삶의 조건 속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풍자의 과녁이 늘 당대 사회를 지향한다고 보면, ‘풍자시’를 내세웠지만 풍자의 목적이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서술시에 그치고 말았

중순에 발행되었다. 『新刊紹介』, 『동아일보』 1949.10.26, 2면.

12) “애국가 제6호 국민보도연맹 발행”, 『新刊紹介』, 『동아일보』 1950.2.11, 2면; “애국가 제7호, 국민보도연맹 발행 정가 1부 백원”, 『동아일보』 1950.3.17, 2면.

13) 「思想 轉向에 拍車 國民保導聯盟을 結成」, 『동아일보』 1949.4.23, 2면.

14) 1949년 10월에 들어 정부는 남로당과 민전 산하의 133개 단체에 대한 등록취소령을 내렸으며,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수기간을 마련하여 대대적인 전향공작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 주요 일간지에는 남로당원의 전향성명서가 넘쳐났다.

다.

국민보도연맹은 이러한 매체 발간을 통해 선무 작업을 진행하면서 “남로당원 자수 선전기간”을 실시하게 된다. 11월 1일부터 일주일간 실시 예정인 “남로당 根滅週間”에 앞서 마련된 “남로당원 자수 선전주간”(10.25~10.31)은 관대한 처분으로 갇힌 길을 열어주겠다는 약속으로 자진 자수를 유도하고 있다.¹⁵⁾ 기관지의 발행을 통한 사상적 선도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온정주의”¹⁶⁾적 전략인 셈이다. 정지용의 가맹은 11월 4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진다.¹⁷⁾

나는 소위 야간도주하여 三八선을 넘었다는 시인 『정지용』이다. 그러나 나에 대한 그러한 중상과 모략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내가 지금 추궁하고 싶지 않는데 나는 한개의 시민인 동시에 양민이다. 나는 二十三年이란 세월을 교육에 바쳐왔다.

월북했다는 소문에 내가 동리사람에게 빨갱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집을 옮기는 동시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바, 보도연맹에 가입하라는 권유가 있어 오늘 온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국가에 도움되는 일을 해볼까 한다.¹⁸⁾(띄어쓰기-글쓴이)

같은 기사에서 “문학가동맹을 탈퇴한 후 심경의 변화”로 “자진 가맹”했다고 하나 인용문의 가맹 감상에서 보듯이, “권유”에 의한 선택이었다. 물론 고녀에 찬 “심경의 변화”도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전향은 신변의 위협에서

15) 『懺悔하고 돌아오라 南勞黨員自首週間을 設定』, 『동아일보』 1949.10.26, 2면. 30일까지 자진 가입한 사람이 1815명에 이르러 연맹 최고지도위원회에서는 이 주간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연기하였다. 『國民保導聯盟의 南朝鮮勞動黨 根滅週間延長』, 『한성일보』 1949.11.1.

16) 서울지방법원 이대희 검사장은 검찰청의 반공 투쟁 전략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온정주의로써 사상적으로 선도하여 충성된 우리 국민으로 하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는 엄벌주의로서 개과천선의 문호가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도배를 용서 없이 엄중 처단하는 두 가지다.” 『李檢事長談』, 『동아일보』 1949.10.26, 2면.

17) 정지용 외에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맹 문학인은 다음과 같다. 정지용·정인택·윤태웅·이원수·배정국·김철수·이봉구·황순원·이성표·임서하·강형구·송완순·양미림·최병화·엄홍섭·박노아. 『著名한 文化人의 自進加盟이 異彩』, 『동아일보』 1949.12.1, 2면; 『자유신문』 1949.12.2.

18) 『詩人 鄭芝溶氏도 加盟 轉向之辯 『心境의變化』』, 『동아일보』 1949.11.5, 2면.

오는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광복기 정지용이 겪게 되는 정신적 혼란과 문학적 파탄은 이러한 공포의 정서에서 연유한다. 광복기 정지용의 작품 가운데 수작으로 꼽히는 「曲馬團」은 이 시기 그가 겪었을 정신적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광복기 자신의 좌파 계열의 문학 활동 전력도 문제가 되었으나 잇따른 정부의 조치로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49년 9월말에는 중등학교 교과서에서 국가이념과 민족정신에 위반되는 저작자의 저작물을 삭제한다는 문교부의 방침에 따라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이 삭제 대상에 포함되었다.¹⁹⁾ 이미 월북한 김남천, 오장환, 박팔양, 박아지, 이선희, 현덕, 안희남, 김동석, 조운 등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좌파 계열의 작가로 분류된 데다가 후속조치를 예상할 때 편치는 않았을 것이다.²⁰⁾ 그만큼 광복 직후 조선문학가동맹 시부문 위원이자 아동문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경력은 이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충분히 문제될 수 있었던 셈이다.

금요일 저녁 전차 속에서 신문으로 알았습니다. 순간에 밀려오는 무슨 압력을 육체로 느끼었습니다. 전차 운전관계이었던지 나는 쓰러질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역사와 세기의 중력이라고 할지,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거늘 이것이 남조선 전 지역에서 느끼는 진감이 아니겠습니까! 北朝鮮에서 보기 좋게 해낸 일이 조국과 민족과 다시 세계에 향하여 무슨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것이 됩니까? 부끄럽지 않기에 당당하겠고 그렇기에 중력과 압력적 우리 조국의 반쪽으로부터 이제 팽창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거것 대담을 합니까?²¹⁾

19) 구체적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고향」(『중등국어』(1)), 「피꼬리와 국화」·「노인과 꽃」(『중등국어』(2)), 「옛길 새로운 정」(『중등국어』(3)), 「소곡」·「시와 발표」(『중등국어』(4)), 「말벌똥」·「벌똥떨어진 곳 더 좋은데 가서」(『신생중등국어』(1)), 『중등국어작문』 70頁. 「國家理念에 違反되는 著作物等を 一切 發禁」, 『조선일보』 1949.10.1, 2면.

20) 여기에 포함된 작가 가운데 이근영, 엄홍섭, 박노갑, 김철수는 국민보도연맹에 정식으로 가입했다가 한국전쟁기에 휩쓸리듯이 월북하고 말았다. 이용악의 경우에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체포되어 1950년 2월 복역하던 중 한국전쟁을 맞아 월북했다.

21) 「人民共和國樹立! 愛國人民 熾烈한 鬭爭의 表現」, 『독립신보』 1948.9.12. 2면.

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 소식을 접한 시민의 여론 가운데서 “壓力 느꼈다”라는 제목이 붙은 정지용의 대답이다. 정지용을 포함하여 한결같이 인민정권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기대에 찬 환영사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감회를 밝힌 사람들이 모두 일반 시민들²²⁾이라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유독 정지용의 발언만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도 좌파신문인데다 이미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두루 알다시피 1947년 중반까지는 조선문학가동맹을 주축으로 문화공작대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적어도 그해 말까지는 활동여지가 있었다. 그러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됨으로써 단정지지세력들은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른바 조선문학가동맹과 같은 좌파단체는 직접적인 탄압의 위기에 직면하여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국가보안법과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법적·물리적 기구를 동원하여 탄압을 강화함으로써 좌파계열의 설 자리는 아예 없었다.²³⁾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 인민정권의 수립에 대한 “쓰러질 것 같은” “압력”을 느꼈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언이다. 신변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이때까지만 해도 정지용의 이념적 지향은 북한 쪽에 가까운 것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광복기 정지용은 당대 많은 지식인들이 하나의 이론으로서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것처럼 심정적인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몇몇 계기를 통해 볼 때, 정지용은 불온한 작가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의 전향은 문학적 생존의 한 방편이었다고 여겨진다. “시필을 완강히 꺾었다”²⁴⁾는 평가와는 달리 정지용은 문학 활

22) “勤勞人民 鬭爭의 結實”(노동자), “文化統一 達成을 確信”(교원), “革命家の 組閣 雙手로 歡迎”(사무원), “民主學園 建設로 祖國에 報答”(학생), “商界에 서광”(상인), 『독립신보』 1948.9.12. 2면.

23) 결국 1949년 10월 좌파 계열의 문학단체나 매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가 단행됨으로써 조선문학가동맹은 정식으로 등록 취소되는 과정을 밟는다.

24) 임학수, 「文化一年의 回顧(詩壇)」, 『서울신문』 1948.12.22, 4면. 김재용 또한 정지용이 1949년 3월 이후 거의 글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재용, 「냉전적 반공주의와 남한 문학인의 고뇌」, 『역사비평』 1996년 겨울호, 278쪽. 실제로 정지용은 「작품을 고르고서」(『어린이나라』, 동지사아동원, 1949.5), 「어린이와 돈」(『소학생』 1949년 5월호), 「작품을 고르고서」(『어린이나라』, 동지사아동원, 1949.6), 「반성할 중대한 재료-특히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말

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이후 문화실장으로 있었으나 활동한 흔적은 거의 없다²⁵⁾는 평가 또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정지용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전향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에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의 기획 하에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50년 2월경 문화실장으로 취임²⁶⁾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정지용의 활동은 한국 문화연구소가 주최한 민족정신양양 종합예술제이다. 이 행사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태평로 시민관에서 열렸다. 저녁 6시부터 열린 첫날 행사는 백철의 사회로 박종화의 개회사, 설의식의 강연, 서정주·박두진의 시낭송이 있었으며, 정지용·김만형·박용구·한형모가 각각 월북문화인 이태준·길진섭·김순남·북조선문화예술총동맹과 북조선영화동맹에 보내는 경고문을 발표하였다.²⁷⁾ 다소 길지만 경고문 기사를 인용한다.

10여 년 전부터 네니 내니 가까웠던 벗 상허 이태준께 이제 새삼스럽게 말을 고칠 맛이 없어 편지로도 농하듯 하니 그대로 들어주기 바라네. 자네가 간 줄조차 모르고 한번 술을 차고 자네 댁을 찾았더니 자네가 예씨 가꾸던 賞心樓 뜰 앞에 꽃나무 그대로 반가웠으나 상심루 주인 자네만이 온다 간다 말없이 행적이 이내 5년 간 묘연하네 그려. 전에 없었던 월북이란 말이 생긴 이후 구태여 자네의 월북 사정이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우니. 일제 질곡에서 사슬이 풀리자 8·15 이후에 자네가 반드시 좌익 소설가가 되어야 할 운명이라면 좌익은 어디서 못하겠기에 좌익지대에 가서 좌익 노릇 하는 것이란 말인가. 이왕이면 멀리 모스크바에 남아서 좌익은 아니되던가?

자네 좌익을 내 믿기 어렵거니와 아마도 죽어도 살아도 민족의 서울에서 건달 끈기가 없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모스크바 가는 바람에 으쓱했던가 싶어서 여기서 아메리카 기행을 쓴 사람이 아직 없는 바에 자네 소련기행이 분수없이 너무 일러버렸네. 38선 책임을 자네한테 돌릴 수는 없으나, 자네 소련기행 때문에 자네가 친소파 소리 듣는 것이 마땅하고 민족문학의 좌우 파쟁의 참담한 책임은 자네가 질만하지 않는가. 나는 아직 친미파 소리 들

숨, 『소학생』 1949년 7월호, 『평어』(『여자중학생문예작품집』, 교육주보사, 1949)들의 심사평문이나 수필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박태일, 앞의 글, 87~104쪽.

25) 『정지용전집』 1(민음사, 2003.4 개정판), 620쪽.

26) 『文壇動靜』, 『문예』 제2권 제3호(1950.3), 199쪽.

27) 『燦爛한 文化人의 큰잔치 綜合藝術祭典第二日盛況』, 『서울신문』 1949.12.5, 3면.

은 적 없으나 아무리 생각해야 내가 친소파가 되어질 이유가 없네. 어려서부터 자네를 내가 아는 바에야 어찌 자네를 소련을 조국으로 삼는 소설가라고 욕하겠는가. 그러나 왜 자네의 월북이 잘못인고 하니 양 군정 철폐를 재촉하여 조국의 통일독립이 빠르기까지 다시 완전자주 이후 무궁한 연월까지 자기가 민족의 소설가로 버티지 않고 분수없이 빨리 38선을 넘은 것일세. 자네가 넘어간 후 자네 소설이 팔리지 않고 자네 독자가 없어지게 되었네. 자네들은 우리를 라디오로 욕을 가끔 한다고 하더니만 나도 자네를 향하여 응수하기에는 좀 점잖아 졌는가 하네. 38선이 장벽이 아니라 자네의 월북이 바로 분열이요 이타이 되고 말았네. 38선의 태세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된 것도 자네의 一助라 할 수 있지 않는가?²⁸⁾

이태준에게 보내는 경고문을 통해 자신의 전향 표지를 뚜렷이 한 셈이다. 그리고 낮밤으로 나누어 개최한 둘째날 행사에서 정지용은 사회를 맡아²⁹⁾ 다시 한 번 문학계에 자신의 전향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인용문에서는 이태준의 “월북 사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분수없이 빨리 38선을 넘은” 일을 은근하게 꾸짖고 있다. “반드시 좌익 소설가가 되어야 할 운명이라면 좌익은 어디서 못하겠기에 좌익지대에 가서 좌익 노릇 하는 것이란 말인가. 이왕이면 멀리 모스크바에 남아서 좌익은 아니되던가?”라는 말은 좌익 문학 활동 자체를 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장소만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정지용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동기의 자발성과 강제성 여부를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태준의 “운명”으로서의 좌익 문학 활동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민족문학의 좌우파쟁”과 “분열”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상이한 체제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아마도 정지용에게 사회주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이념체계가 아니었을까? 정지용을 심정적인 사회주의자로 규정한다면, 그만큼 정지용의 전향은 일시적인 신변보호책으로 선택한 방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또한 국민보도연맹에서는 12월 18일 국민사상선양대회를 개최하였으며³⁰⁾,

28) 『尙虛에게』, 『서울신문』 1949.12.5, 3면

29) 『한성일보』 1949.12.5. 둘째날 낮에는 정지용이 사회를 맡았으며, 오종식·염상섭의 강연, 김용호·설정식·유치환의 시낭독, 김기림·장추화·신막·김정섭·박은용·박경아가 각각 이원조·최승희·박영근·안영일·북조선음악동맹·조선연극동맹에 보내는 경고문을 발표하였다. 밤행사는 당시 보도연맹 문화실장이었던 양주동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30) 『反共의 意氣衝天 國民思想宣揚大會盛大』, 『동아일보』 1949.12.20, 2면.

1950년 1월 8일에서 10일까지 국민보도연맹 문화실 소속 문화인들이 총동원되어 제1회 국민예술제전을 개최하였다. 8일에는 설정식, 양주동, 박인환, 임학수가, 9일에는 송돈식, 정지용, 김용호, 김상훈이, 10일에는 임호권, 김병욱, 여상현, 박거영이 시낭독을 하였다.³¹⁾ 이 행사에서 정지용은 “유머틱한 사회”로 개막식을 주도하였다고 한다.³²⁾ 이러한 점을 통해 국민보도연맹 문화실에서 정지용의 활동과 위상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가 보도연맹 문화실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1950년 5월초부터 6월에 걸친 정지용의 남행 또한 일종의 선무 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³³⁾

Ⅲ. 국민보도연맹시기 정지용의 발굴시 세 편

이번에 글쓴이가 학계에 처음으로 보고하는 「妻」, 「女弟子」, 「磔磻里」는 『새한민보』 제4권 제1호(통권 제62호, 서울신문사, 1950. 1. 20, 34~35쪽)에 게재된 작품이다. 순간(旬刊)으로 발행된 『새한민보』는 『서울신문』의 자매지로서 안호승이 편집·발행인을 맡았다. ‘지용’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며, 「詩三篇」이라는 큰 제목 아래 세 편을 두었다. 이 외에 시와 시조로는 정인보의 「薛梧村先生을 생각하고」, 김광섭의 「편지」, 김약성의 「早春」을, 홍영의의 수필 「雪夜

31) 그리고 정갑, 김기림, 송지영(8일), 인정식, 설익식, 홍효민(9일), 최진태, 전원배, 김병달(10) 등의 강연이 있었으며, 정인택, 안기영, 정현웅(8일), 김정혁, 엄홍섭, 김용환(9일), 박노갑, 김막인, 신막(10일) 등이 메시지를 낭독하였다. 『평화일보』 1950.1.8.

32) 「燦爛한 國民藝術祭 長安人氣獨占下에 드디어 開幕」, 『조선일보』 1950.1.9, 2면.

33) 박태일, 「새 발굴 자료로 본 광복기 정지용 문학」, 『한국 근대문학의 실증과 방법』(소명출판, 2004.3), 112~122쪽. 『국도신문』에 1950년 5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연재된 「南海五月點綴」 18편은 이 시기의 산물이다. 박태일은 월북화가 정중여와 함께 한 정지용의 남쪽 기행과 그에 따른 기행 수필 연재가 국민보도연맹의 전체 기획 아래 이루어진 남쪽 지역 선무활동으로 보았으며, 수필은 그러한 점을 자각하여 충분한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씌어졌다고 보았다. 실제로 남쪽 여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이나 ‘문학의 밤’과 같은 문학행사 참여는 지역 문학사회뿐만 아니라 좌파문인에 대한 전향과 선무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獨步』, 진우촌의 시대극 『王建』을 읽고 있다.

<새한文苑> ‘시특집’으로 편성된 이 호에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국민
보도연맹시기 정지용의 시 세 편을 만날 수 있다.

(1)

山楸子 따라

산에 가세

돌박골 들어

산에 올라

우리 같이

山楸子 따세

楸子 열매

기름 내어

우리 孫子 방에

불을 키세

- 「妻」

(1)은 표피적인 맥락을 따라 읽으면 아내와 함께 산에 올라 “山楸子”, 그러니
까 개오동나무 또는 오동나무 열매를 따서 기름을 내어 불을 밝히자는 내용이
다. 이를 새로운 세계로의 방향 설정으로 읽기에는 앞뒤맥락이 느슨하다. 현실
세계로 열린 시선이 차단되어 있어 (1)에서는 뚜렷한 주제의식을 찾을 수 없다.
더욱이 제목을 「妻」라고 한 까닭도 간파하기 어렵다. 다만 광복의 감격과 광복
투사들의 귀환을 노래한 「愛國의 노래」와 「그대들 돌아오시니」에 견주어 보면
그의 시의 특징인 언어 절제의 미덕을 잘 살려내고 있는 편이다.

널리 알려진 「四四調五首」와 마찬가지로 인용시 (1)은 4·4조라는 정형성에
간혀 버린 시다. 물론 문학적 생애 내내 사상(내용)을 담는 시적 방법(형식)을
모색하는 데 골몰했던 시인이었고 보면, 이러한 형식 실험은 이데올로기적 혼
란에서 비롯된 정신적 고통의 산물로 볼 수 있다.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불안
한 현실과 수습되지 못한 자기동일성을 시의 형식적 정형성을 통해서 회복함

으로써 시를 원점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려는 노력³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4·4조의 형식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후기시의 특징으로 거론하는 “정적의 공간과 여백미”³⁵⁾로 해석하기에도 난감하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 정형성은 언어를 단순화하고 현실을 단순화시켜 혼란스러운 자신을 형식에 가두어 버림으로써 현실과의 대결의식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만큼 (1)은 국민보도연맹시기 정지용 시의 면모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인 셈이다. 사상성을 담지하지 못한 문학을 빈곤한 문학으로 간주하여 부정했던 그의 문학론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적 경향은 퇴행적 현상이다.

국민보도연맹시기 정지용 시의 향방은 주로 이러한 내면세계나 풍경 묘사에만 머물고 있다. 그런 점에서 (2)또한 (1)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먹어라
어서 먹어

자분 자분
사각 사각
먹어라

늪고 나니
보기 좋긴

뽕냘 삭이는 누에 소리
흙땀이 치는 봄비 소리
너 먹는 소리

『별꼴 보겠네
날 보고 초콜렛 먹으래!』
할 것 아니라

어서 먹어라

34) 장도준, 『정지용 시 탐구』(태학사, 1994), 228쪽.

35) 이승원, 『정지용 시의 심층적 탐구』(태학사, 1999), 149~165쪽.

말만치 커가는 처녀야
서걱 서걱 먹어라.
- 「女弟子」

인용시 (2)는 『妻』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시적 반응을 일으킬 만한 주제의식이 희박하다. 여제자가 성장해 가는 기쁨을 형상화한 작품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보도연맹시기에 쓴 작품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다소 회화적인 어투가 눈길을 끈다.

제자가 아니라 ‘여’제자라는 제목뿐만 아니라 “먹어라”는 서술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여제자의 빠른 성장을 기원하는 대목이 흥겹다. 이러한 희화성을 드높이는 데 청각적 이미지를 선택한 것은 상당한 효과를 갖는다. “늑고 나니/보기 좋”은 것은 “뽕뽕 삭이는 누에 소리”이자 “흙땀이 치는 봄비 소리”로, 이것은 곧바로 여제자의 “너 먹는 소리”와 등가된다. “자분 자분” “사각 사각” “서걱 서걱” 등의 감각적인 의성어 또한 여제자의 성장을 기리는 데 적절하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2)에서 정지용의 후기시의 한 양상인 위트와 결부된 유머감각³⁶⁾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떤 정신이나 사상의 한 단면을 적절하게 환기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이 시의 한계이다.

(3)
여보!
운진수 양반
여기다 내빼리구 가믄
어떠카오!

礪礪里까지 만
날 데레다 주오

冬至 셋달
꽃 본 듯이 아니라
礪礪里까지 만
날 좀 데레다 주소

36) 이승원, 앞의 책, 138~149쪽.

취했달 것 없이
다리가 휘청거리누나

帽子 아니 쓴 아이
열여들 째 낫을가?
『礪礪里까지 가십니까?』
『넌두 少年感化院께 까지 가니?』
『아니요』

캄캄 야밤 중
너도 突變한다면
열여들 살도
내 마흔아홉이 벅차겠구나

헐려 뚫린 고개
상여집 처럼
하늘도 더 꺾어
쫓비잇 하다

누구시기에
이 속에 불을 키고 사십니까?
불 디레다 보긴
넌 데
영감 눈이 부시십니까?

탄 탄 大路 신작로 내기는
날 다니라는 길이겠는데
겉다 생각하니
논두렁이 휘감누나

소년감화원 께 까지는
내가 찾아 가야겠는데

인생 한번 가고 못오면
萬樹長林에 雲霧로다
- 『礪礪里』

인용시 (3)은 국민보도연맹시기 정지용의 시편 가운데 『曲馬團』과 더불어 가

장 손꼽을 만한 작품으로, 녹번리 소년감화원까지 가는 불안한 여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1)(2)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보도연맹시기 정지용의 내면 풍경을 가장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시이다.

시적 배경이 “깜깜 야밤 중”인 만큼 분위기는 어둡고 음울하다. 따라서 소년감화원을 찾아 나서는 화자의 여정은 험난할 뿐만 아니라 공포의 정서가 지배적이다. 어떤 까닭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운전수는 목적지인 소년감화원까지 화자를 데려다 주지 않는다. 중도에 내린 화자에게는 목적지까지 걸어가야 하는 고단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화자는 처음으로 열 여덟 쯤 된 모자 쓴 아이를 만난다. “깜깜 야밤 중/너도 돌변한다면/열여덟 살도/내 마흔아홉이 벅차겠구나”라는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소년감화원까지 혼자 가야 하는 처음의 불안한 정서가 증폭되어 화자는 아이를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게다가 그들이 나누는 대화 자체도 소통구조가 차단된 부정의식의 고조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공포의 정서는 칼날 같이 서늘하다. 그리하여 그는 “혈려 뚫린 고개/상여집”처럼 “하늘도 더 꺾어/쪼비잇”하다고 여기는 공포의 순간에 직면하기도 한다. 8연 역시 5연의 대화체처럼 부정의식이 고조되어 있다(“불 디레다 보긴/넌 테/영감 눈이 눈부십니까?”). 이러한 공포는 “탄탄대로 신작로”를 걸어가지만, “논두렁이 휘감”는 생각에 이르러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셈이다.

10연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소년감화원의 위치를 모른다. 그런 까닭에 공포의 정서가 배가되는지도 모른다. 정지용은 이화여대 교수직을 사임한 1948년 2월에 녹번리 초당(현재 은평구 녹번동 소재)으로 이사하였는데, 이 당시까지도 녹번리에 머무르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집이 소년감화원 주변에 있었을 개연성은 아예 없다. 그런 까닭에 화자의 소년감화원행은 국민보도연맹 문화부의 기획으로 이루어진 선무사업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당시 국민보도연맹 문화부의 선무 공작 대상에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교도소나 소년감화원의 재소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에서는 강연회를 잇따라 열었으며, 음악회를 개최하거나 연극·영화를 상연하는 등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일반 시민들을 교화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1950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에 걸쳐 시공

관에서 개최한 제1회 국민예술제전에서는 시낭송이나 무용, 각종 강연 못지않게 연극과 영화를 상연하기도 했다. 박노아 원작의 연극 『돌아온 사람들』과 보도연맹 문화실에서 제작한 영화『保聯特報』 제1집(기획 김정혁, 제작 허달)이 바로 그것이다.³⁷⁾ 따라서 인용시 (3)은 국민보도연맹시기 정지용의 보도연맹 활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마지막 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여정은 공포를 넘어 허무에 이르는 점에서 다분히 문제적이다. 『曲馬團』의 마지막 연에서 “防寒帽 밑 外套 안에서/危殆 千萬 나의 마흔아홉 해가/접시 따러 돈다 나는 拍手한다.”고 접시 돌리기의 위태로움을 자신의 삶의 위태로움과 동일시했던 그였다. 따라서 “인생 한번 가고 못오면/萬樹長林에 雲霧로다”는 마무리는 『曲馬團』과 동일한 지점에 놓이는 시로, 국민보도연맹시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 대한 자책과 불안을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IV. 마무리

이 글은 정지용의 광복기 문학 가운데서 국민보도연맹시기를 따로 설정하여 정지용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는 과정과 가입 후의 활동을 고찰하고, 『새한민보』 제4권 제1호(1950.1.20.)에 게재된 발굴시 『妻』, 『女弟子』, 『礫礪里』를 통해 국민보도연맹시기 정지용의 문학 활동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두었다.

첫째, 광복기 정지용 문학의 한 시기로 국민보도연맹시기를 설정한 까닭은 우선, 국민보도연맹의 결성으로 문학인들이 국가기구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관리됨으로써 광복 직후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시부문 위원이자 아동문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정지용으로서는 좌파 전력이 크게 문제되었던 시기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과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국가감시체계의 작동으로 사상적 제약이 극심했던 까닭에 그의 전향은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형식과 내용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던 이전의 시편들과는 달리 이 시기는 상상력의 파탄 징후를 드러냄으로써 형식에

37) 『서울신문』 1950.1.8.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쓴 10편의 시들은 대체로 언어를 아끼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함으로써 형식에 집착하고 있었다. 산문시의 경우에도 심한 눌언에 빠져든 것처럼 서술어의 쓰임새가 급격하게 퇴조하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 보이는 4·4調 형식의 시는 다분히 문제적이었다. 「礫磻里」와 「曲馬團」과는 달리 이 시들은 최대한 말을 아끼되 대상이나 풍경을 가볍게 형상화하는데 머물고 있을 뿐이다. 광복기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혼란을 거듭했던 정지용의 처지를 생각할 때, ऐसा롭지 않은 변화라 볼 수 있었다.

둘째, 정지용의 광복기 좌파 활동과 발언을 고려했을 때, 그의 전향은 자연인으로서, 명망가 시인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보았다. 정지용을 심정적인 사회주의자로 규정할 수 있다면, 그만큼 그의 전향은 일시적인 신변보호책으로 선택한 방편이었을 가능성이 짙었다.

셋째, 학계에 널리 알려진 바와는 달리, 국민보도연맹 문화실에서의 활동은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1950년 2월 보도연맹 문화실장에 오른 것을 보면 국민보도연맹 문화실에서 정지용의 활동과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선무 공작의 일환이었던 1950년 5월초부터 6월말에 이르는 남행(南行)에까지 이어졌다.

넷째, 국민보도연맹시기 정지용 시는 주로 내면세계를 표출하거나 단순히 풍경을 묘사하는 데 머물고 있었다. 「妻」에서 보이는 4·4조의 형식 실험은 이데올로기적 혼란에서 비롯된 정신적 고통의 산물로,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적 선택이라 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형식적 정형성은 언어를 단순화하고 현실을 단순화시켜 혼란스러운 자신을 형식에 가두어 버림으로써 현실과의 대결의식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女弟子」 또한 「妻」와 마찬가지로 시적 변용을 일으킬 만한 주제의식이 희박했으나, 국민보도연맹시기에 쓴 작품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다소 회화적인 어투가 눈길을 끌었다.

다섯째, 발굴시 세 편 가운데 「礫磻里」는 국민보도연맹시기 정지용의 국민보도연맹 활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였다. 화자의 소년감화원행이 누적된 공포의 정서를 넘어 끝내 허무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시돌리기의 위태로움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했던 「曲馬團」과 마찬가지로 국민보도연맹시기 정지용의 회한어린 자책과 불안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정지용은 1949년 10월 문교부의 지시로 교과서 수록시가 삭제된 이후, 문학적 정전의 대상에서 철저하게 밀려났다. 이후 이한직이 엮은 『韓國詩集』을 비롯하여 각종 선집에서 정지용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다. 그만큼 광복기 좌파문학인들의 잇따른 월북과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 최후는 우파문단의 문학패권 장악과 좌파문학인의 정리라는 의미를 지닌다. 결국 1988년 해금되기 전까지 정지용의 문학적 명성은 반공이라는 짙은 그늘 속에서 묻히고 말았던 것이다.

주제어 : 정지용, 발굴, 발굴시, 「妻」, 「女弟子」, 「磻磻里」, 『새한민보』, 『愛國者』, 국민보도연맹, 국민보도연맹 문화실, 문학적 명성, 정전, 문단 재편.

참고문헌

1. 일차자료

- 『愛國者』 제2호, 국민보도연맹중앙본부, 1949.10.15.
『曲馬團』, 『文藝』 제2권 제2호, 1950.2.
『四四調五首-늙은 밤, 네 몸매, 꽃분, 山 달, 나비』, 『文藝』 제2권 제6호, 1950.6.
『椅子』, 『해성』 창간호, 1950.2.
『새한민보』 제4권 제1호(통권 제62호), 서울신문사, 1950.1.20.
『정지용전집』 1, 민음사, 2003.4. 개정판.
『동아일보』, 『조선일보』, 『독립신보』, 『자유신문』, 『경향신문』 외

2. 이차 자료

-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김선호, 『국민보도연맹사건의 과정과 성격』, 경희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2.
김재용, 『냉전적 반공주의와 남한 문학인의 고뇌』, 『역사비평』 1996년 겨울호.
김학동, 『정지용 연구』, 민음사, 1997 개정판 1쇄.
박태일, 『새 발굴 자료로 본 정지용의 광복기 문학』, 『한국 근대문학의 실증과 방법』, 청동거울, 2004.
백일민, 『푸락치 日記』, 삼팔사, 1952.
오제도 엮음, 『自由를 爲하여』, 문예서림, 1951.
오제도, 『共產主義 A.B.C』, 국민사상지도원, 1952.
오제도, 『붉은 群像』, 남광문화사, 1951.
오제도, 『追擊者の 證言』, 희망출판사, 1969.
이관후, 『국가형성기의 한국 민족주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이승원, 『정지용 시의 심층적 연구』, 태학사, 1999.
장도준, 『정지용 시 연구』, 태학사, 1994.
홍지영, 『共產主義 批判 33講』, 동일출판사, 1952.

<Abstract>

A Study on Poems Written by Jeong Ji-yong during Federation of Protecting and Guiding the Public Period

Lee, Soon-Woog

This paper aims at taking a close look at how Jeong Ji-yong joined the Federation of Protecting and Guiding the Public and what he did after joining the organization by separating the period of the Federation of Protecting and Guiding the Public from Jeong Ji-yong's other literary works during the period of Korea's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examining Jeong Ji-yong's literary activities during this period by studying discovered poems A Wife, A Female Pupil and Nokbeoni which were published in the Saehanminbo Vol.4, Issue.1 on January 20, 1950.

To begin with, the first reason why the Federation of Protecting and Guiding the Public period was set aside as a separate period from Jeong Ji-yong's other literary work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is that Jeong Ji-yong's leftist history became highly controversial during this period when Korean literary men began to be controled and managed directly by the national agency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ederation of Protecting and Guiding the Public, because he served as an executive committee member of the poem part at the Federation of Joseon Literary Men and chairman of the Children's Literature Committee. Therefore, it was inevitable for him to convert because the national control system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Federation of Protecting and Guiding the Public have put stringent restrictions on ideologies. The next reason is that his poems written during this period are obsessed with forms revealing some signs of

creativity failure unlike his previous poems, which used to strike a delicate balance between a form and a content. Most of his works put a great emphasis on forms by thinking much of words and moderating emotions. Given Jeong Ji-yong was faced with repeated ideological conflicts and chaos at the time, the change in his works cannot be underestimated.

Second, given Jeong Ji-yong's leftist activities and remark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his conversion can be interpreted as a strategic decision to survive as a natural person and poet in exile. If Jeong can be categorized as a sympathetic socialist, it is highly likely that he chose to shift direction as a temporary protection measure.

Third, his activities at the Culture Division of the Federation of Protecting and Guiding the Public were quite dramatic, as opposed to what the academic circles have believed. His status and activities in the organization seemed significant because he reached the top position of the Culture Division in February 1950. These activities were followed by his going south from early May to June in 1950, as a part of regional pacification works.

Fourth, Jeong Ji-yong's poems written in this period were limited to just expressing the inner world or describing a scenery. The experimental form of 4·4 meter can be seen as a product of his mental anguish caused by ideological conflicts, rather than his choice for a method to deliver the content in an implicative way. This fixed form in his poems could have been established by voluntarily giving up the sense of confrontation with reality to confine himself to a form by simplifying both language and reality. In *A Female Pupil*, Jeong Ji-yong had weak motif of making a poetic modification as in *A Wife*, but its relatively comic tone compared to other works in the Federation of Protecting and Guiding the Public period drew attention.

Fifth, out of the three discovered poems, *Nokbeoni* best represents Jeong

Ji-yong's activities at the Federation of Protecting and Guiding the Public. The poem displays his remorse and anxiety during this period as in the *The Circus Troupe*, in which he identifies his life with the precarious dish-spinning trick, in that the narrator's detention in the juvenile reformatories means the accumulated fears reaches the level of emptiness. Jeong Ji-yong have been totally excluded from the objects of literary controversy since his poem listed in the textbooks was deleted by the Department of Culture and Education in October, 1949. It is particularly visible in *The Collection of the Late Poets* compiled by Seo Jeong-ju and *The Collection of Korean Poems* compiled by Lee Han-jik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therefore, the tragic end of literary artists in the wake of a series of writers crossing over into North Korea and the war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signifies the dominance of rightist literary circles and the clearance of leftist writers. Jeong Ji-yong's literary reputation had to be buried under the dark shadow of anti-communism until the ban on his works were lifted in 1988.

Key Words : Jeong, Ji-yong, discovery, discovered poem, *A Wife*, *A Female Pupil*, *Nokbeoni*, *Saehanminbo*, *A Patriot*, The Federation of Protecting and Guiding the Public, Culture Division at the Federation of Protecting and Guiding the Public, literary reputation, controversy, realignment of the literary circles.